

21-5, 2021년 5월 2일 밴쿠버 김은중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

"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눅 5:37-38)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걸어옵니다. 본래 금식은 그들의 대속일에 한번 하는 것이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랑되신 메시아 예수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들이 받아드리지 않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날일지라도 혼인식에 참석하는 자들에게는 예외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밴쿠버 유학생 사역에 있어서 선교사들 가운데 신축성(FLEXIBILATY)가 부족하면 그들을 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담고서 비 본질인 형식에 있어서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에 보면 성경이 말하거나 금하지 않는 문제를 “아디아 포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우상에게 재물로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신축성있게 대했습니다. 사실 아디아 포라 문제를 잘 대처해야 이곳 젊은이들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철 같이 비 본질에 대해서 갈대 같이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사랑으로 라는 원칙을 세워 놓고 사역을 하면 이곳 유학생과 1.5세를 잘 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마음은 본질에는 갈대같이 비 본질에는 강철 같이 모든 문제에는 형식을 이런 원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사도 아디아 포라 문제로 많이 분열된 경우가 많습니다. 밴쿠버에서 발견되는 아디아 포라 문제는 무엇일까?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수련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 수련회 장소 문제로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장소는 무조건 기도원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들은 경치가 좋고 숙박시설이 좋은 휴양지 같은 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원이든 휴양지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잔치를 진지하게 갖는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시설, 좋은 음식으로 잘 섬기고 깊이 있는 말씀잔치를 한다면 어떨까요?

2. 4월 한달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코로나로 인해 계절의 변화도 잊고 살 정도이지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녹색으로 바꾸시고 꽃들로 채우셨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상황도 천천히 변화시키고 이제 백신을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연령대를 점점 낮추면서 접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직 맞지 않았는데 조만간 신청해서 맞을까 합니다.

최고의 백신인 예수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막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전 보다 더 믿음이 건강해 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곧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밴쿠버도 여전히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 들지 않았지만 예전과 다른점이 있다면 야외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가정 방문이나 교회 모임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대학들은 9월에 새학기를 시작하는데 교육부 정책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등교를 막을 방침이기에 9월전에 모두 접종을 마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나 교사들 중요한 공무원들은 이미 다 맞은 것 같고 2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만간 일반 사람들도 접종을 많이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소망을 확고히 하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이전 보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번 반복적인 일상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저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의 종말을 이룰것이고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1) BCIC(Blessed Church In Christ 주안에 행복한 교회주일) 사역

매주마다 11시에 인터넷 줌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통 7명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ELIZABETH, JOE, CATHY, 동수, 준, 혜수가 참석합니다. 주로 청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주마다 누가 복음 말씀을 강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혜의 설교가 강단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복음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 심령에 다시 적셔지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생한 복음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이젠 익숙해져 갑니다. 설교하면서 PPT넘기고 음악 틀어주고 정신없지만 이제 참석자들도 순서와 내용을 알기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특송을 넣어서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영어로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회정도 설교하다 보니 이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자유롭게 표현됩니다. 아직 발음과 액센트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설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배후에 나누는 시간에 서로의 삶과 말씀을 나눌 때 반응을 보면 대부분 이해하는 표정입니다.



2) EAM(ESF Academy Mission 밴쿠버어학연수 온 학생들) 사역.

언어연수로 오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6개월 아니면 1년 과정인데 밴쿠버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대부분 돌아가지만 밴쿠버 대학에 편입해서 공부를 계속해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편입하게 되면 이들을 성경공부에 참여시키고 예배에 참여시켜서 훈련하고 교회지체로 등록하도록 돕습니다.

지난 7명이 EAM에 참석해서 현재 JOE, ELIZAR, TOSHI, CAREN 4명은 남고 3명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4명은 학원 강의를 끝나고 이제 편입준비를 한다고 바쁩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지난주에 TOSHI와 연락을 했는데 좀더 기도하면 참석할 것 같습니다.



3) ECM(ESF Campus Mission 밴쿠버 대학 캠퍼스) 사역

제가 섬기고 있는 SFU 대학과 CAPILANO 대학은 여전히 20퍼센트만 학교에서 강의받고 나머지 80프로는 여전히 온라인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학교에 가면 반드시 방문증을 받아야 하기에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휴게실이나 도서관 부근에서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캠퍼스에 갈 때 마다 5명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학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냥 만나는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캠퍼스에는 이슬람권 학생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으로 만들어진 국가 이기에 본래 캐나디언이란 족속 보다 다민족으로 만들어진 국가이기에 참 신기하면서도 복음의 좋은 텃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이슬람권 공산권 힌두권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대가 됩니다.



4) BIBLE Study 사역

성경공부는 일대일과 그룹으로 공부합니다. 그룹은 토요일 오후 6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공부하는 인터넷으로 일대일로 이루어집니다. 일대일을 하는 사람과 과목은 이러합니다. 서예화(로마서2과),손혜수(창7장),김동수(창38장),ELIZABETH(GENESIS1),JOE(THE WAY),CATHY(THE WAY)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가장 활발하게 공부한 팀은 "THE WAY" 공부입니다. 특히 CATHY라는 자매는 하

나눔에 대해서 참 알고 싶어 합니다. 천주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 한과 한과 공부할 때 마다 말씀을 참 사모하고 기뻐합니다. JOE라는 학생은 성경공부를 처음 해 친구인데 생각이 깊고 진지합니다. 행동이 느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즘 주일예배후에 지체들과 운동하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3. 기도제목

1) EAM(ESF ACADEMY MISSION)

THE WAY 공부가 잘 마무리 되고 CATHY와 JOE가 토요일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특히 TOSHI가 예배와 성경공부에 관심이 있는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2) ECM(ESF CAMPUS MISSION)

전도 모임을 매일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5명이상 만남을 갖고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3) BCIC(BLESSED CHURCH IN CHRIST)

주안에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와 식사 운동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영어 설교가 유창하게 될수 있도록. 매주 마다 Elizar와 Tosi, Caren, CATHY, 참석하도록

4) 코비드 상황이지만 교회성도와 멤버들이 감염되지 않고 학교, 생활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5) 가족이 주안에서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6) 한달 사역과 생활비가 매달마다 잘 채워져서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7) 아들 형준이가 대학에 합격하도록(토론토 경제학과와 밴쿠버에서 간호학과 중에서)